

‘새로운 설레임’ 진안홍삼축제

26~28일 홍삼 활용 체험·공연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풍성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 2025 진안홍삼축제가 이번주 화려한 막을 연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안 마이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새로운 설레임’이라는 슬로건처럼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찬 가을 축제로 진행된다.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인 진안군에서 펼쳐지는 홍삼축제인 만큼 홍삼을 상징하고, 활용해 ‘진안홍삼빙고!’, ‘홍삼짜두기 蔘蔘페스타’, ‘홍삼에너지 랜던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진안 인삼과 홍삼을 테마로 한 蔘蔘(삼삼)한 주제관,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캐치! 티니핑 상어농쇼’, ‘문화축제’ 등 공연행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인기가수가 출몰하는 ‘제9회 진안고원 힐링 트로트페스티벌’,



2025 진안홍삼축제 포스터

전국 자전자 대회인 ‘투르 드 진안고원’, 진안군 역도선수단과 함께하는

‘홍삼과워존’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비롯해 ‘홍삼버버큐’, ‘감성먹거리존’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준비돼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 진안의 건강한 매력과 활기찬 가을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고,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5 진안홍삼축제’는 가을임으로 물든 마이산 풍경과 함께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방문객들을 만나 올가을, 진안에서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행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회에서 진안군 기본주거 정책 발표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전국 5개 지자체 참여

진안군은 24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가해 진안군 기본주거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의 주최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각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진안군을 포함한 전국에서



진안군은 24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가해 진안군 기본주거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관내 어르신과 아동,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군은 각 읍·면 대표경로당과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총 19개소를 찾아 백미와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위문에는 최훈식 장수군



수가 직접 참여해 위문품을 손수 전달하며 시설 이용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정했다.

최훈식 군수는 시설 이용자와 파

뜻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건강과 안부를 행쳤고, 종사자들에게는 고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군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며 현장에 함께한 어르신과 아동들은 명절을 앞두고 군수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최 군수는 “노인과 아동 등 우리 군의 복지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무주서 열려

제41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24일 무주군 무주를 등나 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다함께·군세계·끝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펼쳐진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경노)와 무주군지회(지회장 이대수)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14개 시군 대표 선수 등 1천 5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각시군 대표들은 기념식에 이어 고리 던지기, 공 튀기기, 게이트볼, 미니파크골프, 화식배구, 한궁 등 경기에 출전해 실력을 겨뤘으며 장기지팡으로 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이의 작은 빛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시련을 딛고 도전에 나선 여러분의 열정이 성취의 기쁨을 안겨주리라 믿는다”라며 “무주대회가 화합과 우정



의 장이 돼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경노 협회장은 “K-관광수도 자연특설시 무주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행복한 축제 한마당이 우리를 건강한 사회 주체로서 꽃피게 서게 할 것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는 도내 지체장애인들의 자기계발과 체력증진,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회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인식개선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

28일까지 2300여명 선수 참가

한국의 사모녀'를 꿈꾸는 전북 장수군에서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주)라엔란(대표 김영록)이 주관하는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는 100M, 100K, 38K-P(팔공산), 38K-J(장안산), 20K 총 5개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26일 100M 코스를 시작으로 27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특히 대회는 100마일 코스를 처음 선보이게 되어, 국내 최고의 트레일레이스 대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회로 될 전망이다.

트레일러닝은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가 아닌 숲길·흙길 등 자연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의 주요 관광 명소인 장안산과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을 배경으로 펼쳐져 참가자들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기간 장수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본 행사장에서는 장수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판매 부스와 다채로운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운



영된다.

또한 후원 브랜드 부스도 함께 설치돼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산악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해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트레일레이스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4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 농촌 기본소득 선정 촉구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4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회복 형태로 지금과 지역 내 소비와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되살리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년층에도 안정적 인 생활 기반을 제공해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은 군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 있다”며 “장수군은 이미 시민사회와 행정이 긴밀히 소통·협력한 경험과 전통을 지니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수군의 거버넌스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의회는 2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해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반드시 30% 이상 반영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이상 반영해야”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반드시 30% 이상 반영할 것을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주민 삶의 안정,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순환 회복, 청년 정착 지원 조성 등 미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분담비율을 기존 3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수군의회는 “도비 분담비율 축소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비 분담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전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장수군은 최근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장수군과 장수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금례)가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14개 시·군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힘써 온 위원 11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전 경향신문 기자이자 작가인 유인경 강사가 ‘행복과 장수의 비밀, 관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힐링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이후에는 시·군별로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내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안전망의 핵심으로서 든든히 자리매김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무주군은 24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2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강단에 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7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펼쳤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사례 중심으로 공유돼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렴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화물차 22대 야간 안전 운행 장치 설치

무주군이 교통 취약자에게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조성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협력해 지역 내 1톤 이상 화물차(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22대에 야간 안전 운행 장치(뒷바퀴 조명등)를 설치했다.

이날 차량에 부착된 조명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조정을 부품으로, 불출되지 않는 고정식 구조다.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아 눈부심으로 인한 사고 발생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보행자, 이륜차,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야간 운행 화물차량의 식별을 도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